

새교우 교육 3. 성서공부 방법: Pre-Modern; Modern; Post-Modern

들어가면서

- 대전제. 성서의 기능. 성서의 가르침 => 나는/우리는 누구인가, 어떻게 살아야 하나?
- Christian Identity. Jesus Christ => Jesus is the Christ (예수가 그리스도다!)
 1. 그리스도의 제자? 혹은 그리스도인? (초기 제자회 선구자들의 고민)
 2. Disciples of Christ? (Disciples of Jesus Christ)
- “구원의 경험” (Personal Experience) => 예수와의 연관성
- 제자교회/The Christian Church (Disciples of Christ)와 일맥상통. 성서로 돌아가자!

A. 성서를 대하는 3 가지 입장

	무엇인가 (내용)	무엇을 주는가 (기능)	어떻게 좋은가 (효용/가치)
근본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“하나님 말씀” • 역사적으로 일회성 사건 (예. 홍해를 건넌, 동정녀 탄생, 오병이어 사건) • Pre-Modern • 성서의 내용(what)=>S.T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자연적 계시 • 모세는, 예수는 유일 무이의 계시=>신적 권위 • 성서의 사건들은 대부분 “예외”적 사건 • 우리(o); 그들(x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점—Security, 기독교 경전 (Badge, i.d.) • 단점—무책임성; 기독교 대~단하지만,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(믿는 것 외에는) 별로 없다!
자유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스라엘의 문학, Factual, Historical, Fictional • 성서의 이해 (how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스라엘 백성에 공지를, 그리고 교훈을=> 지식 • Modern • 우리(x); 그들(o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점—종교학, 고고학적 가치 • 단점—신앙인과 무관, 역사적 연구/지식 절대화
우리들의 신학하기 (성서적 모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앙인들의 삶과 지혜 모음집 • 이스라엘 민족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학 하기 • 성서와의 만남 (where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나는 누구인지, 어떻게 살지를 가르친다 • 예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“모범”이다=> 지혜 • 우리(o); 그들(o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점—나도 예수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. • 성경은 나를 위한 이야기 • 단점—책임감/부담감, 불확실성* • Post-Modern

*열린 미래와 내가 선택해야 하는 자유에서 비롯된 실패의 가능성/위험성/두려움을 감수 (Risk-taking)

B. 우리는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?

1. 무엇을 썼나 (내용)

- "구원"의 사건, 경험 ("구원"이라는 표현을 일으킨 사건! 이것이 알고 싶다.)
- 이 "구원"의 보따리를 열면, 무엇이 있을까? (읽어야 안다. 덮어 놓고 읽으면, 모른다!)

2. 어떻게 쓰고 있나? (전달방식)

- 당시의 말/언어, 표현 방식을 통해서
- Q. 어떤 말/표현은 지금은 낡은 것 혹은 무의미한 것 => 새롭게 다시 표현되어야 (신학 다시하기)

3. 왜 썼을까? (의도)

- "구원"의 사건, 경험을 통해 얻은 그 "구원"/가치/뜻을 전하기 위해 (바로 이 가치가 내게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, 성서는 오늘도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.)
- 성서를 읽을 때, "무엇," "어떻게," "왜" 이 3 가지 질문은 항상 있을 것인데, 그 중에 제일은 "왜"라는 질문이라.
- 왜? 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. (다른 것은 시공의 차이, 전달매개체—언어—의 제한성 때문에 매이기 쉽다. 근본주의, 자유주의처럼 =>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)